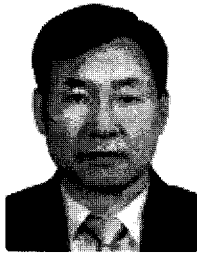


역경 뒤에 숨어있는 더 큰 희망을 봅시다



이 성 주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구제역으로 인해 국민에게 큰 빛을 졌습니다.

2010년에 세 차례나 겪는 구제역으로 인해 축산인들을 비롯한 온 국민의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축산인들은 자식같은 가축을 매몰하려니 눈물이 나고 공무원, 경찰, 소방, 군인들은 엄동설한과 싸워가며 연일 계속되는 매몰처리와 방역활동, 밤샘근무 등으로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불행한 소식도 들립니다. 일반국민들이 겪는 불편도 적지 않습니다. 식당 손님이 드물고 관광지가 썰렁해졌습니다. 구제역 방역에 투입된 정부예산도 엄청납니다.

이번 구제역을 계기로 축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셉니다. 보다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과 함께 축산업허가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축산인들의 방역·환경·위생의식도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축산인들의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 국민들에게 빛을 지지 않도록 내 목장과 내 가축을 스스로 지켜내겠다는 각오로 축산인들부터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비싼 댓가를 치렀으니 이번 기회에 선진적인 축산업, 선진 축산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FTA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새해엔 EU와의 FTA 국회비준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낙농선진국과의 FTA는 우리의 낙농생산기반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맞이할 수밖에 없다면 FTA에 대한 과도한 걱정보다는 우리의 체질을 강화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는 것이 낫습니다. '피해갈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시장개방이라는 모험을 선택함으로써 세계무대를 향한 도전과 경쟁

을 통해 발전해 왔고, 그 원동력은 바로 우리 국민 스스로의 창의적인 노력과 근면성이었습니다.

낙농산업도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국내 원유생산량의 74% 수준을 차지하는 신선우유는 세계 어느 나라와의 경쟁에서도 이겨낼 수 있으며, 오히려 무궁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중국 등에 수출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발효유, 조제분유, 아이스크림 같은 유가공품 분야에서도 가능성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부도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가공원료유, 소비확대, 생산성 향상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요컨대, FTA는 우리 낙농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낙농산업의 체질도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국내 원유수급변화를 기회로 삼아야

낙농인들이 은퇴하거나 타 축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비해 신규 낙농인의 진입은 많지 않습니다. 자본은 많이 드는데 일은 힘들고 수익성도 요즘에는 한 우나 오리 등 타 축종보다 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로 인해 낙농가수와 젖소 사육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구제역으로 인한 사육두수 감소와 함께 가축거래가 제한되어 생산성이 떨어지고 불안정한 번식기,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산유량도 눈에 띄게 감소하는 바람에 성수기 원유공급이 부족할 전망입니다. 여기저기서 경영악화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나 준비된 낙농가 입장에서는 원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쿼터제는 과거와 같이 생산량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계획적인 경영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 꾸준한 젖소개량, 적절한 육성우 관리, 조사료 자급기반 확충 등을 위한 노력이 경주된다면 낙농인들의 살림살이는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역경 뒤에 숨어있는 더 큰 희망을 봅시다.

낙농산업의 경쟁력은 원유의 생산성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유제품의 가격구조를 보면 낙농선진국에 비해 유통제조비용은 별 차이가 없으나, 원유가격에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지방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에 비해 선진외국은 유단백과 무지고형분을 중시하는데 바로 이러한 차이가 유제품의 경쟁력을 결정짓게 됩니다. 결국 원유의 생산성을 더욱 높이고 원유의 성분가격체계도 소비자의 수요를 고려하도록 개선해 감으로써 낙농산업의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열악한 목장환경만을 탓한다면 정예 낙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양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영 마인드가 절실합니다. 경영 마인드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장부를 기록하면 경영은 시작됩니다. 기록을 하면 돈이 보이고 어디서 돈이 새는지 알 수 있기 때

문입니다. 생산성 향상은 바로 낙농인 스스로를 위한 일이며 자발적인 의지가 없으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새해에도 국제 곡물 값의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생산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을 위해 국산 조사료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사료비를 지원받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것' 이나 별반 다를 바 없으며 결국 빚으로 남을 뿐입니다. 외국의 조사료에만 의존하다 보면 국산 조사료 산업의 발전은 더욱 더 멀어지고 언제까지나 외국의 사료업체에 목매달고 살아야 합니다.

새해에는 잉여원유의 질곡에서 벗어나 낙농가가 우대받는 세상이 될 것이며, 경영 마인드로 무장한다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의 해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식량과수꾼으로서 정예 낙농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역경 뒤에 숨어있는 희망을 보름 달처럼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

